

경기도, '2021 렛츠 디엠지' 홍보대사에 배우 김의성 위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배우 김의성 씨를 '2021 렛츠 디엠지(Let's DMZ) 평화예술제'의 홍보대사 겸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경기도는 배우 김의성 씨를 '2021 렛츠 디엠지(Let's DMZ) 평화예술제'의 홍보대사 겸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년차를 맞는 'Let's DMZ 평화예술제'는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평화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고, DMZ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종합 학술?문화예술 행사입니다.

다음달 2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막하는 올해 행사에선 DMZ포럼(학술), DMZ콘서트(공연), DMZ아트프로젝트(전시·체험), DMZ런(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배우 김의성 씨는 평화예술제를 통해 다채롭게 표현될 '평화'에 대한 염원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인물로 꼽힌다는 게 도의 설명입니다.

김의성 씨는 영화 '1987', '부산행', '내부자들', '암살', 드라마 '미스터선샤인' 등 다양한 작품에서 선 굵은 연기를 펼쳐왔습니다.

한편, 도는 일반 도민을 평화예술제 홍보대사로 위촉해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의 공식 홍보대사단을 출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평화예술제의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수행할 홍보대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DMZ와 평화, DMZ의 생태적 가치 등 DMZ 또는 평화협력과 관련된 사연이 있는 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온라인(letsdmzpa@gmail.com)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준석 hjs@ifm.kr